

# 2007CES(세계 가전전시회)를 통해 본 세계 IT산업 트렌드

출처 : 전자정보센터



## Summar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CES(세계 가전전시회)는 세계 전자 및 IT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세계 140여 개국의 2,500업체가 참여해 차세대 전략 제품들을 선보인 2007CES에서는 “Digital Home”을 장악하기 위한 가전·IT·콘텐츠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단연 돋보였다.

Digital Home 장악과 관련된 업체들의 전략 방향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Connectivity”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시켜 콘텐츠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가전·IT·콘텐츠 각 진영의 업체들은 타 진영의 업체들과 수직적 결합 또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Digital Home”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가전산업을 둘러싼 변화에 연유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가전업체 위주로 진행되던 CES는 최근 들어 가전·IT·콘텐츠 등 다양한 진영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전자·IT 업계의 대표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 2007CES : New Convergence 시대의 개막

2007년 1월 8일 美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해 4일간 진행된 2007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세계가전전시회)에는 총 140개국 2,500여 개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사의 혁신적인 차세대 전략제품들을 선보였다. 올해로 개최 40주년을 맞이하는 CES는 세계 전자·IT 산업의 향배를 나타내는 트렌드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행사이다.

이번 CES에서는 “Digital Home”을 장악하기 위한 세계 유수의 가전업체 및 IT 업체들의 움직임이

단연 돋보였다 “Digital Home”을 둘러싼 가전 및 IT 업계의 변화에 대해 CES 주최측인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의 회장, Gary Shapiro는 “New Convergence of Broadband, Content and Consumer Electronics”로 설명했다.

이번 2007CES의 화두이기도 한 “New Convergence”는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디바이스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Best Quality 콘텐츠 개발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전, 콘텐츠, 네트워크 각 진영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불가피하다. 최근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디지털 미디어 또는 디지털 단말기 업체들과 활발히 제휴관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고, 휴대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Google, Yahoo 등의 인터넷 업체들이 협력해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인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가전업체 위주로 진행되던 CES가 최근 들어 가전 I, T 콘, 텐츠 등 다양한 진영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전자·IT 업계의 대표 전시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 2007 CES Mega Trends 분석

### *Trend 1 AnyTime, AnyWhere, AnyDevice Connected Life*

#### 1) 무선 홈네트워크 시대 개막

이번 2007CES에서는 가정 내 모든 디지털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무선 홈네트워크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IT 업계의 대표주자인 Microsoft, Intel, AMD, HP 등이 가정 내 디지털 단말기를 무선 연결하는 홈서버 개념의 신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일본의 Toshiba가 ‘TV-PC’의 무선 연결을, 그리고 국내 사업자인 LG전자가 ‘DVD 플레이어 TV 오디오’의 One Device Control을 시연하는 등 무선 네트워크의 다양한 이용 가능성이 나타났다. 특히, Microsoft의 Bil Gates는 2007CES 기조 연설에서 Windows Home Server와 이에 기반한 몇몇 소형 PC들을 소개했다. Windows Home Server는 5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2007년 중 시판될 예정이다.

[사진 1] Windows Home Server에 기반한 HP의 TouchSmart



자료 : Sony Pictures

## 2) Smart TV 인터넷 콘텐츠를 TV로 즐긴다

PC를 통해 이용하던 인터넷 비디오 콘텐츠들을 TV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Smart TV 제품이 이번 CES에 대거 공개됐다. 지난해 CES에서 유비쿼터스 TV 개념의 SlingBox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Sling Media가 올해는 Smart TV인 SlingCatcher를 공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lingCatcher는 2007년 내에 200달러 미만의 가격대로 출시될 예정이며, 사이즈 또한 소형이어서 운반이 편리하고, 기존 TV에 장착하면 무제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Sling Media의 Blake Krikorian CEO는 "언제든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원 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Sony 역시 PC를 거치지 않고 TV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Sony Bravia Internet Video Link를 선보였다. 회사측은 일반 책 사이즈의 이 단말기를 통해 콘텐츠 채널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출시 초기에는 일부 업체(Sony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ony BMG Music, Yahoo!, AOL, Grouper)의 콘텐츠만으로 가용 범위가 한정될 예정이다.

Microsoft의 Bill Gates 회장은 올해 안에 콘솔게임기인 Xbox 360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Smart TV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MS는 AT&T, BT, Swiss Telecom 등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Netgear는 최근 인수한 SkipJam의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셋톱박스에 추가해 홈 엔터테인먼트 및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한편, 미국 위성방송 사업자인 DirecTV도 Smart TV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DirecTV는 인터넷 비디오콘텐츠를 가정의 TV로 전송하기 위해 YouTube, MySpace 등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HD DVR 셋톱박스를 보유한 DirecTV의 가입자들은 가정 내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 / 음악 파일을 TV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휴가 성사될 경우, 2/4분기부터는 PC의 비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비디오 콘텐츠를 TV로 직접 재생하는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DirecTV는 올해 안에 HD DVR 사용자를 위한 개인채널 편집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on-demand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사의 웹 사이트에 인터넷 링크를 게재해 간편한 녹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CES에서의 발표된 Smart TV 제품들 외에도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MacWorld에서 공개된 Apple의 Apple TV가 Smart TV로서 주목 받고 있다. Apple TV는 iTunes에서 구입한 동영상 콘텐츠를 무선을 통해 TV로 전송해주는 셋톱박스로 가격은 300달러로 책정되었다.

[사진 2] MacWorld에서 Apple TV를 발표하고 있는 Steve Jobs



자료 : MacWorld

시장조사업체인 IDC의 Bob O' Donnell 애널리스트는 향후 Smart TV에 대해 “한동안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2010년경에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얻는 것이 관련 벤더들의 과제”라고 분석했다.